본 페이지는 무선/날개제본 본문파일 편집 시 유의사항입니다.

페이지 수 오류 방지를 위해 **실제 편집 작업 시 본 페이지는 삭제 후 PDF 파일로 변환해주세요.**

**이 파일은 A5(국판)으로 제작을 원하실 경우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과정 중 여백 없이 꽉 차게 들어가는 이미지나 배경색이 있을 경우, 하얀색 여백이 보이지 않도록 크기를 꽉 채워주세요.

인쇄제작 시 필요한 사방여백 3mm가 포함된 크기로 제작됐습니다. (154mm x 216mm) 상하좌우 3mm는 실제 제작 시 재단되어 반영되지 않습니다.

페이지 크기 및 여백설정 변경은 지양합니다. 여백 변경 시에는 상하좌우 20mm까지만 제작 가능합니다.

**100장의 명함이 100명의 인맥을 만든다!**

**100장의 명함이 100명의 인맥을 만든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발행일 0000년 00월 00일 (발행일은 여유있게 입력)

지은이 홍길동 (저자명을 입력해주세요)

발행처 퍼플

출판등록제 300-2012-167호 (2012년 09월 07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표전화 1544-1900

홈페이지 www.kyobobook.co.kr

ⓒ 홍길동 2017 (저자명 발행연도를 입력해주세요)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100장의 명함이 100명의 인맥을 만든다!

**20대에 인맥의 씨앗을 뿌리면, 30대에 틀림없이 성공한다**

**양광모 지음**

**목차**

**서문**

“성공이란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제1장 100장의 명함이 100명의 인맥을 만든다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인맥의 달인’ K과장의 하루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래사냥

명함 보기를 금같이 하라

당신의 명함집에는 누가 사는가?

말로 주고 말로 받아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사람을 죽어서 명함을 남긴다

명함을 교환하지 말고 마음을 교환하라

명함자동정리기

인맥관리의 최고도구는 휴대전화

인맥관리 사이트

다음 카페 ‘교육의 모든 것’

푸른고래를 찾아서

**서문**

“성공이란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이며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Jim Collins는 성공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성공이란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깊이 공감하게 되는 말이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성공은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고 관계이다.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인데, 행복은 결국 관계의 행복이다. 가족,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

행복은 내일의 행복이 아니고 오늘의 행복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만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만이 온전히 나의 것이다. 내일의 행복을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다. 파랑새는 가까이 있고, 행복은 오늘에 있다.

지금까지 두 권의 책을 냈다. 모두 인맥관리, 인간관계를 주제로 다룬 책이다. 이제 세 번째 책을 출간하게 되어 감흥이 또한 다르다. 조금 더 편안해진 느낌이랄까? 말하고 싶은 주제를 쉽게 쓰고자 노력했다. 어려운 이론이나 용어는 가급적 배제했다.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았다. 진리란 결국 단순하고 평범한 몇 마디 말 속에 모두 담겨 있다.

사실, 인맥관리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인맥관리는 어떤 일보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맥을 만들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렵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살면서 꾸준히 실천해야 할 인생의 숙제다.

이 책 안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인연을 맺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 책에 등장해준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들이 내 삶에 출연해준 덕분에 나의 인생이 조금이나마 볼거리 있는 드라마가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부르며 감사하고 싶지만 쑥스러운 마음에 그러지 않는다. 책이 나오면 일일이 전화를 걸어 고마움과 나의 애정을 고백할 것이다.

첫 번째 책은 아내에게,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아버님 어머님께 바쳤다. 이 책은 나의 딸 희진이와 아들 희재에게 바친다. 녀석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다.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보통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 한다. 그리고 교육과 칼럼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욕심내건대 많은 사람들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쓰면서 살아갈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세상 사람들에게 작은 지혜와 격려의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양광모(푸른고래)

제1장

100장의 명함이 100명의 인맥을 만든다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출간 계약을 마쳤다. 아무 탈 없이 세상에 나온다면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을 바로 이 책이다. 어쩌면 오늘은 ‘운수좋은 날’이다. 내가 쓴 두 번째 책 《당신만의 인맥》이 세상에 첫선을 보이는 날인 동시에 세 번째 책의 출판계약을 한 날이니, 밸런타인데이 선물치고는 썩 괜찮은 편이다.

참 행복하다! 그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날, 이런 날들이 인생에서 며칠이나 될까?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

북북서출판사 우종민 사장을 배웅하고 잠시 회상에 잠겼다. 사실 나도 오래전에 출판사를 차렸던 적이 있었다. 동병상련이랄까? 출판사 사장들을 보면 공연히 안쓰럽고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아마 그런 이유로 이번 계약을 북북서출판사와 맺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책을 출간해준 청년정신의 양근모 사장, 여성희 편집장은 내 인생의 은인으로 두고두고 고마운 분들이며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또 다른 인연을 따라 ‘북북서’로 진로를 돌렸을 뿐이다.

명함에 새겨진 '북북서'라는 출판사 이름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영화 한 편이 떠올랐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만든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North By Northwest, 1959>라는 제목의 영화다. 첩보 스릴러물이었는데, 영화 속에서 미남배우 캐리 그랜트가 입은 회색양복은 세계를 흔든 열 벌의 남성정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진로를 변경하게 된다.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불가피하게 진로를 바꾸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진로의 변경은 어떤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실패작으로 끝을 맺는다. 인생의 성공이란 결국 얼마나 훌륭하게 진로 변경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내 경우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직업을 거치며 살아왔다. 몇 가지만 나열해보자. 한국이동통신 강북영업소 수납과 사원, SK텔레콤 노동조합위원장, 도서출판 목비 대표, (주)블루웨일 대표, 안산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 (주)안산뉴스 운영인, 민주노동당 안산시 성포동 시의원후보, (주)한국부동산지주 대표, 휴먼네트워크연구소 소장, 한국기업교육협회 회장 등이 나의 약력이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명함을 전부 보관하고 있는데, 무려 27장에 이른다.

인생에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은 직업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며,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곧 명함을 바꾼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함 변경은 진로 변경의 상징이며, 명함은 그 사람의 자서전이다. 그 사람이 어떤 명함을 가지고 살아 왔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지금까지 나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불가피한 진로 변경도 수없이 많이 풀이했고 잘못된 진로 변경으로 큰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다행히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보상으로 삶에 관한 작은 지혜와 몇 가지 요령을 얻었다. 이제 그 배움과 경험을 이 책을 읽는 독자와 함께 나누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혹시 인생에서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나와 함께 ‘북북서’로 진로를 바꿔보자!

<끝>